

“충무공의 남원 백의종군 길 걸어봐요”

남원구간, 뒷밤재~남원부~여원치~주천 잇는 53.1km 시, 22일까지 걷기행사...참여자에 농·특산물 선물도

남원시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며 걸었던 남원지역의 백의종군로(白衣從軍路)를 걷는 행사를 오는 22일까지 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백의종군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임금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투옥됐다가 백의종군 처분을 받고 서울 의금부 옥문(지하철 종각역 인근)을 출발해 경남 진주에 도착하기까지 120여 일간 걸은 640.4km의 길이다.

주요 지역은 서울-전주-남원-운봉-구례-순천-동영 등이며 이중 남원구간은 뒷밤재-남원부-이백초등학교-여원치-운봉초등학교-주천-앞밤재에 이르는 총 53.1km 구간이다.

이번 걷기코스는 여원재 옛길 구간으로 남원 이백면 양가저수지-여원치 총 3km 구간(1시간30분)에서 진행된다.

여원재 옛길은 조선시대 간선도로인 통영별로 구간으로 역사적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현장이며 남원의 지류인 요천의 한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참여대상은 걷기를 좋아하는 누구나(남원시민, 관광객, 단체) 가능하며 선착순300명이다.

자유롭게 이 구간을 걷은 뒤 인증 사진을 올리면 1만원 상당의 남원시 농·특산물을 준다.

남원시는 2017년 이 길을 정비하고 주요 지점에 이정표와 종합안내판을 설치한 뒤 해마다 걷기 행사를 열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충무공의 충효 정신을 되새기고 삶의 활력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충무공의 충효 정신을 되새기고 삶의 활력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오는 22일까지 남원 양가저수지에서 여원치 등 총 3km 구간에서 이순신 백의종군길 비대면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남원시 제공>

“전통시장·상가에 온기를” 전북 세일페스타 오늘 개막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대규모 판매행사가 열린다.

전북도는 2일부터 15일까지 전북지역 13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사는 게 즐거운 전북세일페스타’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는 상품 할인 판매, 김치 담그기, 풍물놀이, 벼룩시장 등도 함께 열린다.

더불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은누리상품권 페이백과 함께 방역물품 마스크, 기념품도 받는다.

전북도는 상품 온라인 판매, 농특산물 쇼핑물 세일, 김장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판매,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해 분위기를 돋을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일페스타가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자체, 소비자, 판매자가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남원 서도역·정읍 라벤더농원 등 ‘전북 7대 비경’ 선정

남원 서도역과 정읍 라벤더농원, 고창 방장산 등이 전북도가 선정한 ‘전북 7대 비경’으로 뽑혔다.

1일 남원시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아 비대면 여행지 홍보를 위한 ‘제15회 전북관광 전국사진전’ 공모 결과, ‘전북 7대 비경’으로 남원 서도역 등이 선정됐다.

정읍 라벤더농원, 고창 방장산, 장수 주촌민속마을, 무주 향로산, 진안 용담 섬바위, 전주 팔복예술공장 등이 포함됐다.

남원 서도역은 지난 1932년 지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폐역으로 최명희 작가 대하소설 ‘혼불’의 주무대이다. 또 드라마 ‘미스터션샤인’, ‘간이역’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특히 남원시의 문화·관광분야 사진촬영지 10선에 선정돼 각종 공연과 연주회는 물론 ‘남원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효원의 시집가는 날)’ 등이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 구룡동의 정읍허브원 라벤더 관광농원에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라벤더 꽃밭이 조성됐다.

6월 보랏빛 꽃이 만개하면 보기 드문 이국적인 풍경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당기고 있다. 이들은 라벤더 향기 속에서 인생 사진을 찍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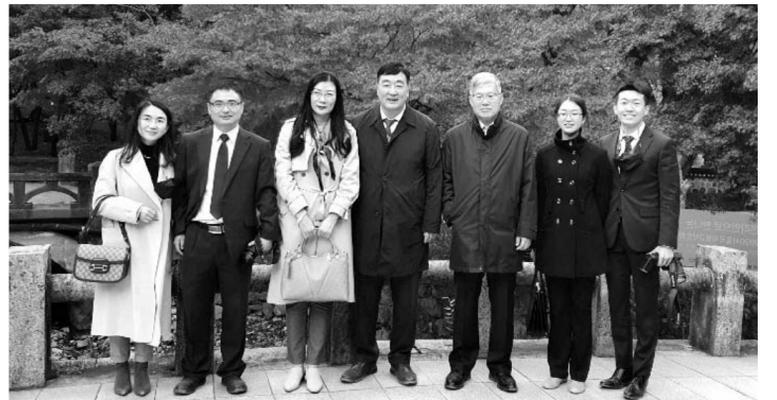
남원 서도역과 정읍 라벤더농원, 고창 방장산이 전북도 선정 ‘전북 7대 비경’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남원 서도역. <남원시 제공>

여념이 없다. 정읍허브원은 총 33만㎡ 규모로 라벤더 30만 주와 라반딘 4만 주를 심어 가꾸고 있다. 이중 라벤

더(6월 개화)와 라반딘(7월 개화)의 식재 면적 부지는 7만3000여㎡로 약 30%를 차지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내장산 애기단풍 너무 아름다워요”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정읍 내장산서 협력 약속



단풍이 절정에 달한 정읍시 국립공원 내장산과 내장사가 단풍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상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일행이 산행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1일 대한불교 조계종 ‘내장사’ (주지 지태스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심 대사와 장정강 광주총영사 일행이 내장사를 방문, 내장산 산행을 했다.

이날 산행에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윤명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함께 했다. 심 대사 일행은 내장산 애기단풍에 연신 감탄했다.

이들은 정해루에 전시된 티벳사진관을 둘러보고 내장사 공양간에 산채 정식으로 식사했다

지태 주지스님은 “내장산과 내장사가 보유한 귀한 자원들이 더욱 빛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정읍

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성보박물관 건립,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 실록 영인본을 제작 등 내장산의 역사성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태 스님은 이어 “지난 2015년 정읍시와 중국위해시 유공도박물관과 협약을 맺고 유공도 해군분부 앞에 내장산 애기단풍을 심어 자라고 있다”며 “이번 심 대사의 방문을 계기로 위해시와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심 대사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양국의 문화우호 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한 관계가 우호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시, 하수관거 공사 하자 1400여건 추가 확인

시정 요구...민·형사상 책임 물어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공사 하자가 1400여건이 추가 확인됐다.

1일 군산시하수관거BTL(임대형 민자사업) 공동조사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단이 하수관거 사업구

간 107.4km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400여건의 하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항목별로는 침하와 파손이 300여 건, 토사 퇴적 등이 1100여 건이었다.

군산시는 지난해 주요 구간 6.9km에 대한 조사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견되자 지난 5월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남은 구간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사안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공사비 편취가 확인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716억원을 들여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011년 마무리됐다. 그러나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